



“체험통한 삶의 지혜 책으로”

주부들 환경보호-子女성교육 방안등 3권으로 엮어

주부들이 생활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권의 책이 여성사회교육원(원장 李効再)에서 나왔다.

환경보호를 위해 주부들이 실천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맛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성교육」△주부를 위한 한자교실「생활한문」등이 바로 화제의 책.

우선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는 노원과 도봉 지역에 사는 6명의 주부들이 지난 2년동안 환경문제를 공부하고 환경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온 결과를 모은 책.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주부들이 개인차원에서 혹은

집단적으로 할 수있는 일상적 실천방법과 감시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주부는 김은경 권미혁 조영옥 김연순 박범이 피원아씨. 이들은『직접 살림을 하면서 생활속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며『대부분의 환경책자가 정작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점을 가르쳐 주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됐다』고 밝혔다. 이책에는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환경, 여성단체등의 명단도 소개돼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사용의 경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되도록 늦출것 △화장품은 되도록 적은 양을 바르고 사용하는 제품의 가짓

품을 어떻게 구별할수 있는지도 안내했다. 이밖에 환경상품을 구입할수 있는 곳과 쓰레기 재활용방법등「실천론」에 대한 설명도 있다.

맛벌이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녀성문제를 중심으로 쓰여진「자녀성교육」에서는「아기는 어디서 와」라는 질문에 피하지 말고「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집에서 아기가 자란다」는 식으로 궁금증을 풀어줄 것을 소개했다.

또 어린이들에게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며「원하지 않는데 어른이 억지로 너를 만질때에는 분명하게 큰 소리로 싫다고 얘기하거나 큰 소리로 울어야한다」고 밝히고있다.

한편「생활한문」에서는 신문을 읽을때등 일상생활에서 주부들이 필요한 용어를 제시하고있다.

여성사회교육원측은『이 책들이 직접 주부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한 만큼 생활에서 직접 활용할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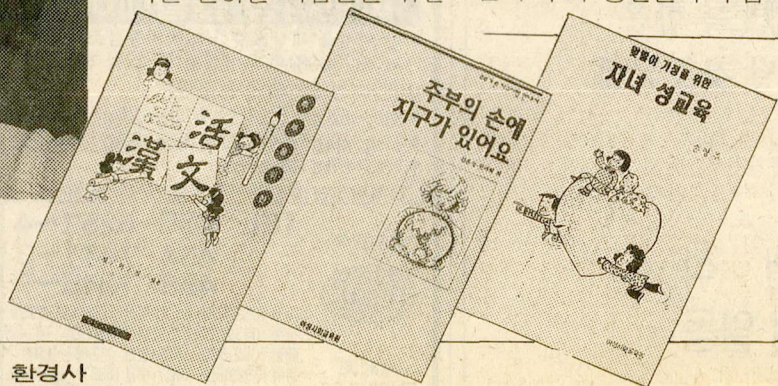
(高美錫)

화장품 사용-쓰레기 재활용법등 소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문용어도 실어

서 주부들이 느끼는 걱정과 고민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또 환경관계 도서소개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도 적게 할것등을 조언하고 천연마사지 방법을 소개했다. 또 식품문제에 대해서는 천연조미료 만드는 방법과 '우리 농산물과 수입식



주부를 위한 환경사랑실천 자녀 성교육 생활한문책이 나왔다. 사진은 환경보호를 위해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고 우유팩을 수거하는 주부들.

